# 인연 따라 중생 대하는 관세음보살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㊷ 관세음보살의 응신

"무진의여, 만약 어떤 사람이 62억 항하사 모래알 수만큼의 보살 이름을 받아 지니고, 다시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 의복, 와구, 약품 등을 공양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선남자 · 선여인의 공덕이 많지 않겠는가?"

"매우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똑같아 조금도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겁을 지난다 해도 다하는 일이 없으리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처럼 한량없고 가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 다니며, 어떻게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며, 그 방편의 힘은 어떠합니까?"

"선남자여, 만약 어떤 국토의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관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곧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곧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범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곧 범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제석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곧 제석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자재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곧 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대자재천 몸으로 제도할 이는 곧 대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곧 천대장군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곧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곧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곧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곧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관리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곧 관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란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느니라.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의 몸으로 제도할 이들에겐 곧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장자나 거사나 관리나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들에겐 곧 그러한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소년, 소녀 몸으로 제도할 이들에게는 곧 소년, 소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등 사람인 듯 아닌 이의 몸으로 제도할 이들에겐 모두 그러한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집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곧 집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무진의여, 이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모습으로 여러 국토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해야 하느니라. 이 관세음보살마하살이 두렵고 위급한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두려움이 없는 무외(無畏)를 주나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 사람들이 모두 그를 불러 두려움이 없도록 베푸는 이라 하느니라."

무진의보살에게 관세음보살의 응신에 대하여 부처님이 말해 주는 장면이다. 보통 32응신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몸을 인연 따라 수없이 나타낼 수 있다. 보살의 명호 가운데 관세음보살의 명호가 가장 중시되는 이유가 이 장(章)에서 밝혀지고 있다.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수지하는 것이 62억 항하사 모래알 수만큼의 보살 명호를 수지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는 한 보살이 전체의 보살 대역을 할 수 있다는 상징성을 뜻하는 말이다. 불교는 중생이 있는 곳에 불 · 보살의 본원이(本願) 있다고 말한다. 중생의 고난을 없애주는 대비원력이 있어 중생을 관찰하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을 자모(慈母)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은혜는 어느 누구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인연 따라 중생을 대하는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응신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응신은 중생의 업보신(業報身)이 아닌 원생(願生)으로 나타나는 몸인 것이다. 이를 변역신(變易身)이라 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 보살의 이타, 명상 통해 닦은 마음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㊷ 응용윤리와 불교윤리의 적용

우리 사회는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지만, 그 변화로 인해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누구나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이처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윤리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들에 대처하려는 시도가 응용윤리학(Applied Ethics)이다. 이 학문은 20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학문 가운데 하나이다. 이전의 윤리학이 주로 이론적 차원에 대한 논의에 머물렀다면 응용윤리학은 수많은 사회적, 도덕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논의이다.

실천윤리학 또는 문제 중심의 윤리학이라고도 불리는 응용윤리학은 윤리학의 분류에서 본다면 규범윤리학에 속한다. 응용윤리학은 응용 규범윤리학을 가리키며, 도덕의 궁극적인 기초나 본질을 탐구하는 순수 규범윤리학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까닭에 응용 규범윤리학에서는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규범윤리 이론을 적용한다. 가장 영향력이 큰 규범윤리 이론은 공리주의와 의무론이다. 현실의 도덕 문제들은 대부분 좋은 결과와 도덕적 의무 간의 갈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혹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행동이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도덕적 의무를 따를 것인지,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행동을 할 것인지 좀처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좋은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자와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의무론자 간에는 상반되는 해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예상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얼마든지 있고, 위급한 상황에서 도덕적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은 불합리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이들 간의 갈등을 피해갈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은 행위자의 인성을 중시하는 덕윤리이다.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는 어떤 고정된 원칙이나 규칙을 고수하는 것보다 폭넓은 식견을 지닌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덕윤리에서는 어떤 도덕 원리에 호소하기보다 바람직한 도덕 공동체를 구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덕목과 인격적 모델을 설정하고서 이를 교육하는 데 주력한다.

응용윤리에서는 구체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이론을 적용하여 그 해법을 모색한다. 공리주의에서는 좋은 결과를 강조하고, 의무론에서는 보편적 원칙과 인간에 대한 존중을 중시하고, 덕윤리에서는 유덕한 성품이나 동기를 지닌 도덕적 행위자의 관점에서 선다. 세 가지 이론을 종합한다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이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다시 말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이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다른 이에게 해악(害惡)이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이를 이롭게 하는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이를 불교윤리와 연관시킨다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보살일 것이다. 대승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보다는 중생의 제도(濟度)를 중시하며, 이를 자신의 종교적 의무로 여긴다. 이런 보살의 삶은 도덕적 수행과 덕성의 도야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보살의 이타적인 행동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悲]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명상을 통해 닦아지는 마음의 상태이다. 따라서 대승 경전 속 보살의 선교방편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선한 의지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보살은 자신의 서원을 실현하기 위해 계율의 근본정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⑱ 성불을 이루는 실천수행

## 윤회, 애욕과 무명 때문

**끝없이 윤회하는 중생**

불자 여러분! 중생들은 끝없이 윤회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생이 지은 업으로 인해 업력이 한량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자기가 지은 업이 다할 때까지 삼계(三界)와 육도(六道)의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잡아함경〉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윤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생들은 시작이 없는 나고 죽음에 오랜 세월 동안 윤회하면서도 괴로움의 본제(本諦)를 알지 못하고 있다. 비유하면 비구야, 어떤 장정이 다섯 마디로 된 바퀴를 항상 굴려 쉬지 않는 것처럼, 중생들도 다섯 갈래 바퀴를 굴려, 지옥 · 축생 · 아귀 · 사람 · 하늘의 갈래에 윤회하면서 항상 굴러 쉬지 않는다. 이와 같이 시작이 없는 '나고 죽음'에 오랜 세월 동안 윤회하면서도 괴로움의 본제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윤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삼계육도를 끝없이 윤회하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윤회의 원인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윤회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사윤회 하는 원인**

불자 여러분! 우리들이 끝없는 이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잡아함경〉 제13권 '견법품'을 통해 "모든 업인 애욕 · 무명, 그것이 인(因)이 되어 다른 세상 몸을 이룬다"고 하시면서 윤회의 원인을 '애욕'과 '무명' 때문이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애욕과 무명은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일까요? 애욕과 무명이 생겨나는 이유를 〈잡아함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과 색을 인연하여 바르지 않은 사유를 일으키고, 어리석음을 일으키면 그 어리석음이 곧 무명(無明)이니라. 어리석음으로 구하고 욕심내는 것을 애욕이라 하며, 애욕이 짓는 것을 업(業)이라고 하느니라."

〈잡아함경〉의 교설처럼, 업을 짓는 것은 애욕 때문이고, 애욕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명 때문이고, 무명의 원인은 모든 것에 대해 바르게 보는 지견 즉 '여실지견(如實知見)'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무명 때문에 갈애(渴愛)와 애욕(愛欲)을 일으키고 업을 지으며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명의 원인은 오염심 때문**

불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명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무명의 원인은 마음의 오염 때문입니다. 마음이 오염되면 마음에 번뇌의 장애와 지혜의 장애를 일으켜 망념과 분별을 일으키며, 분별망상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갈애와 애욕을 일으키며 악한 업을 짓게 합니다.

이렇게 무명으로 훈습된 마음은 진여본성에 상응하지 못하고 불각(不覺)으로 쓸데없는 망심을 일으키게 되고, 이 망심은 더욱 더 커져서 오염으로 무명을 훈습시켜 나가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형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명 때문에 생겨난 망심은 마음에 허망한 망상의 경계를 만들고 망상 분별을 일삼게 합니다. 또한 망상 분별은 또 다른 집착과 업을 짓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서 생사윤회의 세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염된 마음은 무명이 진여를 훈습하는 '무명훈습(無明熏習)'을 통해 청정한 진여본성의 마음에 망심(妄心)을 만듭니다. 또한 생겨난 망심은 무명을 훈습하는 '망심훈습(妄心熏習)'을 통해 마음에 망경계(妄境界)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허망한 망경계가 무명을 훈습시키는 '망경계훈습(妄境界熏習)'을 통해 끝없는 망념과 분별을 일으키며 갈애와 애욕을 일으키며 악한 업을 짓게 합니다.

이처럼 오염된 마음은 '무명훈습'과 '망심훈습'과 '망경계훈습' 등의 과정을 통해서 청정성과 지혜성을 갖춘 진여본성은 탁해지고 어두워져서 지혜가 의식으로 전변되어 중생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